

**“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살전 1:6)**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조나단 강야엘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과 늘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한국에서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관심 속에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몇몇 교회들을 방문하며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혹은 목장이나 교회 모두에게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문하지 못한 교회와 개인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문한 목사님, 목장, 그리고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소식지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식년 중에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기 위해 분기당 한 번씩 방문하기로 해서 작년 10월에 이미 방문을 하였고, 지난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곳은 금년 2월에 시행 예정인 신종교법에 의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 중이던 12월 말에도 제자 한명이 사역 중인 교회 맞은 편 교회가 예배중 공안의 침입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리더는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당시에 공안이 15명을 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재 저희 도시 근교에서 사역하는 제자 두 명에게도 얼마 전 공안이 찾아와 20명을 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임이 큰 제자들에게 모임을 나눌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한 해 모두 5개의 가정교회를 새로 개척하였고, 342명에게 복음을 전도하여 3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2018년에는 모두 11개의 가정교회 개척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신종교법이 오히려 저희와 제자들을 영적으로 더 긴장하게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게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신종교법으로 인해 더욱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 간의 방문으로 설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바울의 많은 칭찬을 듣고 데살로니가와 도처의 믿음의 모범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저희교회가 그러한 모습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제목>

1.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모범이 되도록(데살로니가 교회처럼)
2. 새해 목표(11개 교회개척)가 이루어지도록
3. 현지의 종교정책이 호전되도록
4. 박사과정 공부가 잘 진행되도록
5. 두 딸의 대학교 학업을 위해(큰 딸의 금년 5월 졸업 후 선교 비전을 위해)